

◀하나님! 나의 하나님▶ 거미손 이운재 선수 부인 김현주씨의 기도



‘ 거미손’ 뒤엔 ‘ 기도손’ 있었다  
 대이탈리아전 연장 후반 8분. 이탈리아의 가투소가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날린 오른 발 강슛이 골문을 향해 빠르게 날아가자 한국 벤치는 물론 관중석은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 이렇게 골든골을 허용, 8강 진출의 꿈을 접어야 하는가’ 는 생각이 국민들의 뇌리를 스치는 순간 이운재는 쓴살같이 날아오는 공에 맞춰 스프링처럼 뛰어올랐고 그림같이 왼손으로 공을 쳐내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넘겼다.

스페인과의 8강전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 공릉2동 이운재 선수의 집에선 부인 김현주씨(28)가 뜨겁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이탈리아와의 경기 때는 친정 부모인 손분선 권사(홍릉교회) 김정환 안수집사(홍릉교회)와 함께 기도를 드렸으나 이날은 혼자서 기도를 올렸다. 시댁인 청주로 내려가 시댁어른들과 함께 8강전을 응원하기 위해 막 집을 나서려던 참이었다.

김씨는 “ 우리 경기가 있을 때마다 집에서 홍릉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이 함께 응원했다” 며 “ 경기가 끝나면 친정 어머니는 교회로 돌아가 철야기도를 드렸다” 고 말했다. 김씨는 “ 이런 가족들의 기도로 남편이 이번 경기에서 4게임을 모두 풀타임으로 소화해내며 기량을 맘껏 발휘한 것 같다” 고 말했다.

김씨는 “ 이탈리아와의 경기가 끝난 후 남편이 전화를 걸어와 ‘ 골을 쳐낼 때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인도했다.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절감한다’ 고 말했어요. 남편이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해주길 바라요. 저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 덧붙였다.

경기가 없는 주일엔 가족과 함께 홍릉교회에 출석하며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운재 선수는 아내 김현주씨를 통해 신앙을 갖게 됐다. 딸과 결혼하려면 학습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손권사의 단호한 태도에 1994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98년 결혼했다.

“ 우리는 개인적인 명예나 부유함보다 예수님이 기초된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분이 없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김씨는 시댁으로 내려가며 승리의 V자를 그려보았다.

고개를 뒤로 젖히며 마지막 한방울까지 놓치지 싫었던 새콤달콤한 맛의 박카스. 작은 한병으로는 늘 아쉬웠습니다. 박카스! 이렇게 만들면 좋을텐데.....



1.5리터형 박카스 업소형 박카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2년 교회생활: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b>갈보리 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4권 43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2년 10월 27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우리들의 아름다움

기대한 만큼 채워지지 않는다고 초조해 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더 사랑하지 못한다고 애태우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 사랑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지금 슬픔에 젖어 있다면 더 많은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흘린 눈물,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다고 부끄러워 마십시오.  
 아파하면서 용서를 생각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고 괴로워 마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비우면서 괴로워한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빨리 달리지 못한다고 내 발걸음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해 걷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의 모든꽃과 잎은 더 아름답게 피지 못한다고 안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피어난 거기까지가 꽃과 잎의 한계이고  
 그것이 최상의 아름다움입니다.

-출처, 지은이를 적지 않은 어느 잡지에서-

**엄마가 딸에게**  
 혼수감 때문에  
 예민한 남자와 결혼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먹을 준비가  
 되어있는 남자와  
 웨딩케익을 자르거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빛을 지지 마라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빛진 사람은  
 자신감을 잃는다  
 너는 꾸어주며 살아라

#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아서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인도자
*찬송 Hymn	28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33(시 150)	인도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 같이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찬송 Hymn	318장	다 같이
기도 Prayer		지찬영 권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17:1-4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작은자를 위하여'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278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같이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을 더욱 굳세라' (1절:박정자 집사 가족, 2절:다같이)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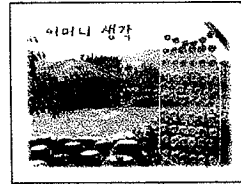
◆10.11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안내위원	가족찬송	Tea Time
27	지찬영	이지영	박정자.김순자	박정자.박지경	김종우.김종원
3	김교섭	양경배	권용일.이지영	박일영.임혜자	김현수.민광호
10	김종건	윤형권	양경배.김동숙	사카시다.최기향	박기원.박기창
17	이광희	임혜자	이재영.김경숙	서동완.유순	박병민.박상옥
24	정덕수	윤한나	윤형권.신영화	손승일.윤한나	박일영.사카시다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엡 5:21)  
<실천사항> 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달살들은 애정표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이동.학생부:주일 낮 12시 | 청년부:토 저녁 6시



시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해의 끝자락이 보입니다.

◆ 감  
이 맑은 가을 햇살 속에선  
누구도 어쩔 수 없다  
그냥 나이 먹고 젊이 들 수밖에는

젊은 날  
떨고 버리던 내 피도  
저 붉은 단감으로 익을 수밖에는 -허영자-

- 1.오늘은 "이삭줍기"주일  
\*이번달에 모은 Silver Coin도 두명의 동남아 어린이의 양식에 생명같이 사용되어 질 것입니다.
- 2.오늘 예배 후 3교회(주님의교회.임마누엘.갈보리)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내일은 모처럼의 공휴일(Labour day)! 약간의 긴장감을 오히려 삶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를 YMCA Stadium에서 즐겁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장소> YMCA Stadium(서쪽 Massey) <시간> 주일예배 후 오후 4시부터 늦게까지  
\*아동부감독:김지은 교사 \*학생부봉구감독:윤한나 집사 \*족구감독:양경배 집사  
\*여자배구감독:윤형권 집사 \*릴레이감독:박병민 집사
- 3.정기당회: 화요일(29일) 저녁 7:30
- 4.교회에서 제단의 카펫을 새로이 깔았습니다. 여러모로 교회가 새롭게 단장되고 있습니다. 우리교회가 Stain Glass 하나를 담당키 위해 봉헌키로하였습니다.
- 5.금요새벽기도회  
이번엔 11월의 첫 번째 금요일입니다. 벌써 두장의 달력만이 남게 되었습니다.새벽기도의 기쁨을 만끽하며 성공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 ▶<11월교회력>

일자	주 일	주 중 모임
3		구역예배(8)
10	식사친교주일	믿음의 어머니기도회(12)
17	감사주일	안수집사 기도회(19)
24	3교회 교환강단주일	당회(26)

### ◆는

딸아이의 눈 속에 내가 있습니다  
맑은 거울처럼 내가 보입니다

자꾸 주어도 부족한 내 사랑이 있습니다  
보고 있어도 그리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며 나는 생각합니다  
나의 눈 속에 내 어머니가 있었을 것이라고 - 방지원 -